

## 어두움에서 빛으로

(요1:4-12)

세상에 빛이 없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런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창조 주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음과 죄악이 지배하는 어두움 가운데 찾아 오셔서 제일 먼저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빛에 대한 어두움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였습니다.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깨닫다 라는 뜻과 '따라잡다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와서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찾아 오셨습니까? 이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혀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로 자신들이 어두움에 속하여 있음을 깨닫고 빛으로 나아 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두움을 어두움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인생의 결정은 어디에 연결되는가에 있습니다. 빛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리고 낮에 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